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Vol. 01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나 눔

KB 작은도서관

Kookmin Bank with Small Library 2008

꿈을 심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흙뿔로 밭을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모두가 쉬어갈 그늘을 만들기 위해
시인은 주머니를 털어 나무를 심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심습니다

시인 안도현씨는 젊은 시인들과 함께 시집인세로 지난 한해
사과나무 2천그루를 심는 등 우리땅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심는 돈, 국민이 만듭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KB *b

Contents Kookmin Bank with Small Library



04 Intro

발간축사 국립중앙도서관장, MBC 사장, KB국민은행장
함께 하는 기업 KB 금융의 별을 넘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겠습니다!
희망 나눔 기업 MBC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

17 Part 01 고맙습니다 KB 작은도서관 현장을 가다

- 18 서울 도봉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 24 경기 부천 아이들이 자라듯 행복이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 30 강원 강릉 동해와 백두가 넘실대는 전망 좋은 북 카페
- 36 충북 증평 우리들의 작은도서관,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요!
- 42 충남 당진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에는 바다가 있어요!
- 48 경북 안동 이제는 다리 건너 시내 도서관에 갈 필요 없어요!
- 54 경남 창원 작은도서관을 넘어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합니다
- 60 전북 완주 도농지역 한가운데에 문화의 향기를 전합니다!
- 66 전남 여수 모두가 꽃잎 하나씩 모아 탐스런 민들레 문화 만들거예요!
- 72 제주 제주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지만 큰 일꾼 키워갑니다!
- 78 해외 조성 해외로 전파되는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사랑
- 베트남 · 캄보디아 -

83 Part 02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보다

- 84 작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 88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공공이 끌고 기업이 밀어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땀 흘린다!
- 92 이용자들이 전하는 사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 94 언론으로 보는 '작은도서관'

Vol 01 Kookmin Bank with Small Library 2008

발행일 2008년 7월 30일 (Vol 01) |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문화방송, KB국민은행

디자인 IDEASPOON(02-2277-6206) | 사진 윤기석 | 편집장 정양순 | 리라이팅 박은몽 | 출력 DITEK

ISBN 978-89-7383-282-8 04020

ISBN 978-89-7383-281-1 (세트)

기업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첫 번째 결실로 KB국민은행이 후원한 전국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고 이에 관한 화보와 이야기를 엮은 「KB 작은도서관」이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마을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와 호흡을 같이하는 곳이자, 책을 매개로 도서관 본래의 가치가 함께 공유되는 생활속의 문화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은 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으로 어린이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운동으로 이어져 왔으며,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은 이러한 민간후원활동을 보다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해 전국 3,560여 개 읍·면·동 단위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기관,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통해 선진문화 국가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주)문화방송과 KB국민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7.

국립중앙도서관장

장남기





자연 · 인간 · 정보가 함께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문화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지고,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초구 반포4동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지하5층, 지상3층(연면적 38,014㎡) 규모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자연, 인간, 정보가 함께하는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기존 본관을 존중하는 열린 배치와 녹색 카펫을 펼쳐 놓은 듯한 조경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건물을 건립 중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 콘텐츠를 생산·편집할 수 있는 전문장비 및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며,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정보의 허브(Hub)가 될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공정률은 72.44%이며, 2009년 개관할 예정이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더욱 많아지기를.....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으로 뜻있는 기업들의 지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지원한 작은도서관 사례집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캠페인의 공동 주최사인 MBC로서는 함께 노력한 결실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캠페인 파트너와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문화소의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새삼스럽게 방송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개관식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한 마당 축제의 분위기가 이 책자의 사진마다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MBC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뿌린 씨앗에서 돌아난 이 희망의 싹들이 건강하게 자라 무성한 녹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친근하고 유익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더욱 많아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 7.

MBC 대표이사 사장 **엄기영**



MBC 사회공헌센터는 온누리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편성본부에
사회공헌센터를 두고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01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문화소의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업
- 02 'MBC 사회봉사대상' _ 우리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포상
- 03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_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캠프
- 04 'MBC 명사들의 사랑나눔' _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애장품 기증 등 나눔 한마당 행사
- 05 '급여 우수리 나눔운동' _ MBC 임직원의 급여우수리를 모아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 06 '청소년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_ MBC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불우청소년 대상 강의봉사
- 07 'MBC 꿈나무 축구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_ 유소년 대상의 전국 '꿈나무 축구리그' 개최 등
- 08 각종 성금모금 및 기부금 집행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사례집 발간을 맞아 나눔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KB 작은도서관」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한 국내외 13곳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6년을 “KB국민은행 사회공헌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KB국민은행 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 ‘KB청소년하늘극장’ 등 직접 수혜자를 위해 발로 뛰는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2007년 ‘고맙습니다 증도작은도서관’ 조성 시 1,000권의 도서를 기증하면서 작은도서관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국내 10곳과 해외 3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는 곳마다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절감합니다. KB국민은행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는 현장에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들과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애써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KB 작은도서관을 사랑해주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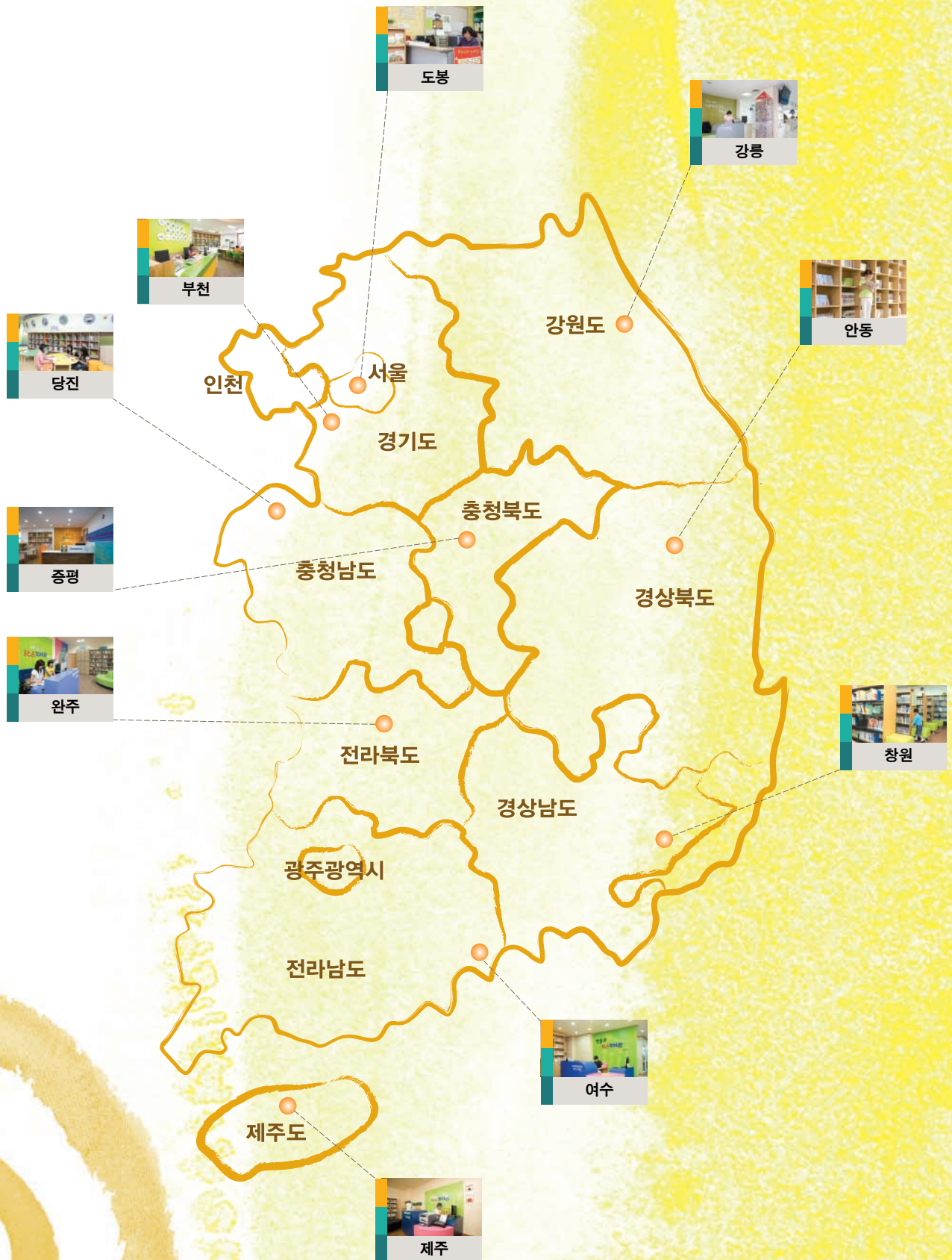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언제나 나눔의 기쁨을 아는 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8. 7.

KB국민은행 은행장 **강정원**



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국내 조성지역





금융의 별을 넘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겠습니다!

웃음을 되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KB국민은행이 '아시아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다가가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제 방과 후에도 있을 곳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철이는 요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을 나가기 때문에 수철이는 그동안 외톨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군데도 다닐 수 없고 밤늦게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무서움을 참으며 혼자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수철이네 동네에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KB희망공부방'이 생겼기 때문이다. “KB희망공부방에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도 계시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무섭고 심심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수철이처럼 웃음을 되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KB국민은행이 '아시아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다가가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실제로 수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지요.”

KB국민은행 사회공헌팀 진광표 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진 팀장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한다는 수혜자 중심의 철학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사랑의 연탄 나눔'이나 '김장 나눔'은 기본이고,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는 물론 해외 사회공헌에도 관심을 기울여 저개발국가가 많은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01 희망이 쑥쑥 자라나는 'KB희망공부방'
02 푸른 희망이 자라나는 '씨엠립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
03 청계천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 '청계천 소리 산책'

문화·예술분야에서 KB국민은행은 장애인 연극단체인 '극단 어우름'을 지원하였고,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전통국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상설예술공연인 '청소년 소리산책'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문화공간인 국립극장과 '후원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천 시나 동절기에 공연이 불가능하고 소음에 노출되는 등 여러가지 약점이 지적되어온 '하늘극장'의 리모델링 사업을 후원하여 국내 최초 아레나 자동개폐형 극장인 "KB청소년하늘극장"으로 재탄생시켰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이름을 딴 최초의 극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외에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청소년 돕기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KB국민은행 영어캠프', 'KB희망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작은 나눔에서부터 문화 예술, 청소년 지원, 해외 지원 등에까지 폭넓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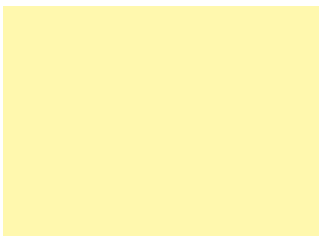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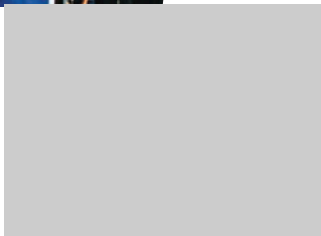
전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KB국민은행 사회공헌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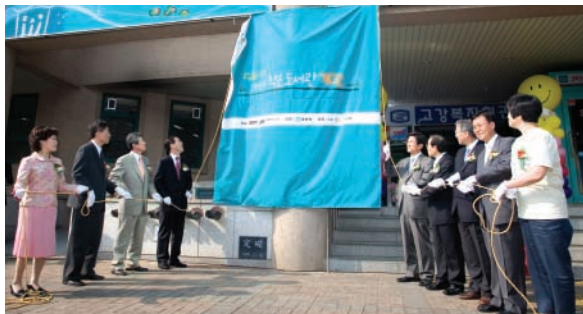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2006년을 사회공헌 원년으로 선언하고 사회공헌을 기업 전체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써 실천해 오고 있다. 왕성한 활동의 중심에는 'KB사회봉사단'이 있는데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36개 봉사단, 1,250개 봉사팀, 26,000여 명의 봉사단원으로 구성된 'KB사회봉사단'에는 CEO 이하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KB국민은행 자원봉사의 날'을 정하여 전 임직원 모두가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날을 즐겁게 지키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는 '사회협력지원부'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기부금을 총괄, 대내외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이처럼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해 온 결과이다. KB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사회공헌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의 별'을 넘어 '세상의 별'이 되어 어두운 곳곳을 밝음으로 비추고 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기업,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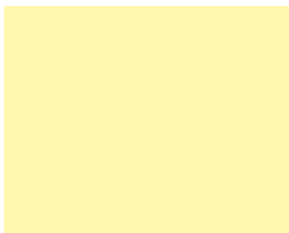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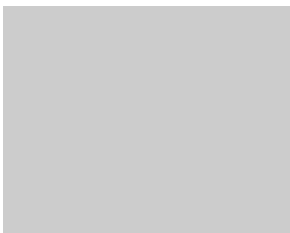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KB국민은행이 작은도서관과 손을 잡았다. 청소년 후원을 핵심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해 온 KB국민은행이 청소년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 10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지원은 지난 2007년 '고맙습니다 증도작은도서관' 조성 시 1,000권의 도서를 기증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서 기증에서 비롯된 첫 만남은 더욱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여 KB국민은행의 지원으로 10곳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첫 번째 성과로 2008년 5월 1일, 경기도 부천의 '고맙습니다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어 지역주민들과 기쁨을 나누었다. KB국민은행은 작은도서관들이 개관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각 영업점이 해당 지역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할 계획이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기업,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01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심어진 따뜻한 온정 02 KB와 엄마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03 우리 아이들을 세계 속의 아이로 키우는 'KB국민은행 영어캠프' 04 사랑의 헌혈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05 이열치열, 뜨거운 온정으로 이겨낸 여름의 수해복구 06 지식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로운 병영문화 07 파릇파릇, 희망이 싹트는 배움 08 알로이시오 초등학교와의 사랑만들기 09 함께 나누는 김장으로 맛있는 행복 담그기 10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나눔 11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이웃 사랑 12 아름다운 땀방울, 스포츠가 전달하는 건강한 사랑 13 자카르타 인근 지역 극빈 아동에게 건강한 내일을 14 장애, 그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

MBC는 2005년부터 편성본부에 사회공헌팀센터를 두고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처음 제정된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발전적으로 개편·승계한 <사회봉사대상>을 비롯해, 개인주의에 천착하기 쉬운 10대들에게 건강하고 숭고한 봉사정신의 참됨을 느끼게 해준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명사들의 사랑 나눔>, 개인과 기업의 봉사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사랑의 힘을 방송으로 증폭시킨 <사회공헌 캠페인> 등의 활동은 신선한 반향을 폭넓게 일으켰다.



사회봉사대상

<사회봉사대상>은 1992년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프로젝트로 올해로 16주년을 맞는다. “이웃에게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소를”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사회의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격려·치하함으로써, 방송을 통해 사회적 귀감을 삼고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 역할에 부응하고 있다.



1318 사랑의 열매캠프

<1318 사랑의 열매캠프>는 전국을 권역별로 세분화 해, 지역별 추천을 통해 뽑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자원봉사캠프로 이수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수여해 준다. 해당권역의 대학 기숙사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일정에 따라 봉사시설(봉사지)을 방문, 체험함으로써 이타적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단체생활을 통한 봉사활동을 해봄으로써 자칫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지기 쉬운 10대들에게 남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명사들의 사랑 나눔

올해로 3회 짝을 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성격의 프로그램인 <명사들의 사랑 나눔>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 많은 명사들이 애장품 또는 현금 기부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팔린 애장품들은 전국의 ‘조손가정’(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사는 가정)을 위해 쓰여진다. 이밖에도 ‘타임경매’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아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도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비교적 희박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캠페인>은 “함께하는 작은 나눔, 하나 되어 큰 기쁨”이란 ID송이 대변하듯 함께하는 작은 나눔의 힘을 크게 증폭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1년 반(2006년 5월~ 2007년 11월) 동안 330여 편이 700여 회 방송되었다. 12“~13” 형태의 짧은 ID (IDENTIFICATION)성 캠페인으로, 그 동안 방송의 비판기능에서 벗어나 방송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생하고 다양한 봉사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본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봉사팀을 만드는 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KORAIL’의 ‘가브리엘의 집 장애투들 댄스나들이’를 시작으로 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사회의 희망나무를 함께 키워 나가다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온 프로젝트로, 참가 희망자의 급여에서 천원 단위 끝전을 떼어 축적하는 방식으로 6월 현재 방송사 임직원의 33%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에서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로 기부금액 만큼 보태 총 6,400만 원을 모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MBC 꿈나무 축구재단

〈꿈나무 축구재단〉은 봄부터 가을까지 (4월~9월) e-MATCHING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자유티그로 운영되는데, 대한민국 방송사 중 유일하게 MBC가 축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630여 개팀, 1만 6천여 선수들이 참가하여 유소년축구 저변확대와 클럽축구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탁월한 태극전사(국가대표)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결선리그에서 잘 싸운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브라질, 영국 등, 선진축구 연수의 특전도 함께 주어진다. 결국, 한국 유소년 축구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인데, 매년 어려운 유소년팀에게 축구용품 전달하고 '소년의 집' 방문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봉사에 일익을 다하고 있다.

또한, MBC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선봉에 섬으로써 전국에 작은도서관이 급속도로 조성되어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어린이부터 사회 고위층의 명사에 이르기까지 봉사의 현장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간다.





Part 1

고맙습니다
KB 작은도서관 현장을

가다

서울 도봉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경기 부천 아이들이 자라듯 행복이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강원 강릉 동해와 백두가 넘실대는 전망 좋은 북 카페 충북 증평 우리들의 작은도서관,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요!

충남 당진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에는 바다가 있어요! 경북 안동 이제는 다리 건너 시내 도서관에 갈 필요 없어요!

경남 창원 작은도서관을 넘어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합니다 전북 완주 도농지역 한가운데에 문화의 향기를 전합니다!

전남 여수 모두가 꽃잎 하나씩 모아 탐스런 민들레 문화 만들 거예요! 제주 제주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지만 큰 일꾼 키워갑니다!

해외조성 해외로 전파되는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사랑 - 베트남 · 캄보디아



초
록
나
라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어요!





-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공고.”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로부터 이 공고를 처음 접하게 된 날 초록나라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운영위원 10명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냄새나는 화장실, 좁은 공간과 책 읽기에도 힘든 조명, 찬바람이 숄 숄 들어오는 창문 등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어렵게 운영해오던 차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 준다는 공고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 “환경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도서관을 찾아주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을 보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늘 갈망해 왔는데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놓고도 불안해하며 결과를 기다리던 중 조성지로 선정되자 운영위원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만나게 될까? 수백 명의 회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짓는 마음이 되어 십시일반으로 관심과 힘을 모았다. 그들이 사랑해오고 앞으로 사랑해 갈 초록나라를 위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저도 돕겠어요”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도봉1동은 개발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도봉구 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이 가장 많고 인근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전교생 850명 중 150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

- “작은도서관이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50분 환승해서 가야 할 정도로 다른 도서관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새마을 문고는 제대로 된 도서관서비스가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초록나라 사랑은 더 뜨거웠는지 모른다. 리모델링 작업에 회원들 60여 명이 매달 5,000원씩 모은 돈을 보탬다. 길지 않았던 리모델링 과정 중에, 후원회원들, 대출회원들, 자원봉사자들, 주부들이 모두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에 참여했고 모두의 의견을 모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힘을 모았던 것이다.



- “초록나라라는 이름에 어울리도록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콘셉트를 맞추었습니다. 원색적인 색상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의 제1원칙은 주 이용자층인 어린이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는 작은도서관이 방과 후 교실이고 학원이며, 또 하나의 가정이니깐요.”

찾아가는 도서관, 삶의 어려움까지도 서로 나누는 도서관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단연코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이다.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장애인이나 미취학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소외아동이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들 23명에게 8명의 책 배달지기들이 무료로 1주일에 한 번 3권의 책을 배달하고, 인근 장애인시설에 1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있다.

- 또한 3년째 진행해 온 ‘한국유네스코 여름캠프’는 초록나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외국 대학생들과의 1주일 캠프를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에서 갖는데, 따로 외국인을 접하거나 전문적인 외국어 공부를 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외국문화를 접하고 외국어 학습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원북지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주는 ‘방과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봄, 여름이면 놀이터에 책을 전시해 놓고 책 읽어주기 행사를 여는 한편, 방과 후 품앗이수업, 도서관 친구들 모임, 주부들의 독서모임, 동네 영화제 등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열성적인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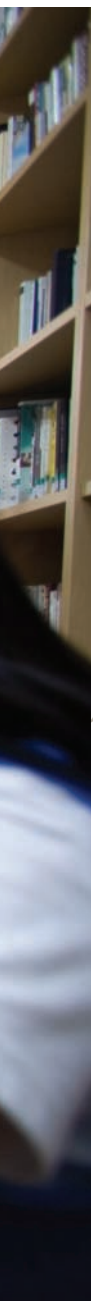
- “저는 책을 읽고 엄마는 도서관 청소를 하세요.” “이곳에서 종이접기와 그림 수업을 하는데, 다른 학원은 가지 않고 여기만 다녀요.”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마처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운영비와 전문인력 부족 등 사립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초록나라 작은도서관은 이미 도봉 1동 주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원한 그늘이 되어 있다.



고맙습니다 초록나라 작은도서관

기존의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방임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향후 북 아트, 독서치료, 자녀교육 등에 대한 대주민 공개강좌를 계획하고 있음.

- 소재_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576-17호 • 개관_2008. 5. 21. • 규모_99㎡ • 시설_열람실, 프로그램실, 안내데스크 등
- 도서_8,000권 • 운영시간_평일 13:00~19:00, 토 13:00~17:00, 공휴일 휴관
- 전화_02) 956-7956 • 팩스_02) 956-7956



경기 부천

고급입니다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KB

아이 도서관

도란도란

아이들이 자라듯
행복이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 “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보고 배울 만한 곳을 찾다가 보물처럼 숨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알게 되었어요. 자주 들러 책을 읽어 주곤 했는데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공간이 너무 좁아 불편해서 책만 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리모델링 한다니가 개관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산뜻해진 도서관을 보고는 정말 기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고 이제 매일매일 한참 동안 머무르곤 해요.”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이용자인 하현미 씨(41)의 말이다. 협소한 공간에서 공립문고로 운영하던 곳이었었는데 공간을 넓히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여 재개관한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이곳을 이용하던 아이들이 자라듯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이 날로 성장하는 모습에 지역주민들도 신이 났다.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에서는 사람들이 책과 어우러져 행복이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회원은 늘어나는데 공간은 좁았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은 1999년 고강복지회관 내 독서실로 문을 열었고, 2001년 복지회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2002년 부천시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립문고로 개관하였다. 그러나 공립문고로 5년 이상 운영되다 보니 회원도 늘어나고 이용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데 15평의 협소한 공간으로는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간 확대 및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2007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필요요구 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죠. 그런데 국민은행의 지원으로 이렇게 재개관을 하였으니 오랜 숙원을 이룬 것처럼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 고강복지회관 내 3개의 강의실을 통합하여 45평으로 넓어진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건 ‘2단 서가’ 공간이다.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김시희 양(초교 2)은 작은도서관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예전에는 의자도 작고 책상도 낮아서 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새 작은도서관은 넓어진데다가 신발 벗고 올라가 누워서 책을 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몇 년 전과 달리 온 가족이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베란다를 활용한 ‘야외 카페’는 어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주민들이 자기 집처럼 작은도서관을 아끼고 참여

“그동안 작지만 큰 도서관으로 꾸려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그 분들이 도서관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아끼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죠.”

손현미 관장의 말이다.

-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성인독서 동아리 ‘작은소리’와 인형극 동아리 ‘계수나무’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진다. 작은소리 회원들은 아동문학을 공부하면서 ‘책 읽어주는 방’ 진행은 물론, 아동독서동아리 지도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계수나무는 인형극의 대본을 직접 쓰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등 인형극 공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늘 많고 복지회관 내의 다른 공간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라 하겠다.

- 매주 목요일 4시만 되면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웅기중기 모여 앉는다. ‘책 읽어주는 방’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림책과 옛날이야기를 듣고 사후활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작가와 함께 하는 동시교실’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직접 동시작가로부터 글쓰기를 배우고 꿈을 키운다. '시민교양강좌'는 식품안전, 부모 코칭, 독서지도 등 주민들이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고들 이용자들이 입을 모은다.

-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측은 자원봉사자들의 성장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역 다른 도서관 친구들과 연계하여 '도서관 시민학교', '자원봉사 교육'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운영 주체가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 이용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키워 가자!"는 그네들의 비전을 향해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복지회관 내의 공립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함. 인근에는 다세대가구가 밀집해 있고 공항 근처의 고도제한구역이라서 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 컸음.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꾸준히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됨.

• 소재_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24-4 고강복지회관 3층 • 개관_ 2008. 5. 1. • 규모_ 152㎡

• 시설_ 유아 및 유치부 그림책 공간, 아동도서 공간, 성인도서 공간, 동아리방, 야외카페

• 도서_ 11,292권 • 운영시간_ 평일 09:00 ~ 18:00, 토 10:00 ~ 13:00, 공휴일 휴관

• 전화_ 032) 679-9702 • 팩스_ 032)679-9707



강원 강릉

고급합니다
LOHAS 강릉

작은도서관

KB

노원점



LOHAS

동해와 백두가 넘실대는
전망 좋은 북카페



- “우와!” 아빠와 함께 시청에 온 성원이는 시청 건물 18층에 새로 문을 열었다는 작은도서관에 들어와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확 트인 창가로 다가가니 자신이 살고 있는 강릉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이 하늘과 닿아 있는 수평선까지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비치되어 있는 망원경으로 보니 먼 자연 풍경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빠, 도서관이라더니 호텔 전망대 같아요!” 처음 작은도서관에 가본 이후로 성원이네 가족은 한 자리에 모이는 저녁시간이면 일찌감치 식사를 마치고 시청의 작은도서관을 찾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족끼리 뭉치는 시간도 많아졌다. 로하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생활에 재미를 붙여 넣어주고 있다.

전망대와 함께

차, 음악, 영화, 공연, 책이 있는 시민들의 북 카페

밤 10시까지 시민들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청 18층의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 얼마 전만 해도 이곳은 시청 건물 꼭대기의 행정자료실로서, 이름뿐인 전망대가 있을 뿐 시민들의 발걸음은 전무하여 쓸렁한 곳이었다. 그러던 곳이 KB국민은행의 지원금과 시 예산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시청 건물에는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공간이 전무했기에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혜택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강릉시 전역을 내려다보면서 책도 읽고 공연과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북 카페로 조성하고자 했다.

LOHAS란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함



- LOHAS 강릉 작은도서관은 처음부터 북 카페형 작은도서관 컨셉트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 카페형 작은도서관이 흔치 않았기에 벤치마킹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리모델링 과정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컨셉트를 잡아 북카페 전문 가구업체에 의뢰하여 가구 및 집기를 마련했고,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도서관 분위기에 맞는 장식용 예술품도 구할 수 있었다. 40인치 LCD 텔레비전 3대가 곳곳에 비치되어 여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도 이 곳에서는 낯설지 않다. 도서는 딱딱한 서가 스타일이 아니라 서점 스타일로 정리하여,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기보다는 책 표지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꾸미는 한편, 시민들의 독서 요구를 반영하여 리더십 · 재테크 · 강릉 출신 작가 · 역사 · 소설 · 수필 · 어린이 등 다양한 주제별로 정리해 두었다.

- “공연 신청을 받습니다.”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스케줄에 따라 공연도 하고 동아리들의 접수를 받아 전시의 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를 위해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을 구비한 공연 및 전시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및 강연회를 열어 올바른 독서법, 독서활용 지도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시청 내의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민원업무를 위해서만 시청을 찾던 시민들이 이제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작은도서관이 있는 시청 건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간에 상호대차 및 자료교환을 자유롭게 하는 등 강릉시립도서관의 분관형 도서관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은 5명의 자원봉사자 외에 전문 사서 1인을 배치하였고 근로자들을 구성하여 주·야간 교대 근무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은 밤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 공간도 넓고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듯이 들르곤 합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오픈 되어 있는 편안한 분위기라서 주말이면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책도 읽으니까 생활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 이미 작은도서관 마니아가 된 지역 주민 조춘희 씨(39)는 이렇게 말했다.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은 시청 내에 마련되어 관공서 건물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는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작은도서관 간에도 상호협력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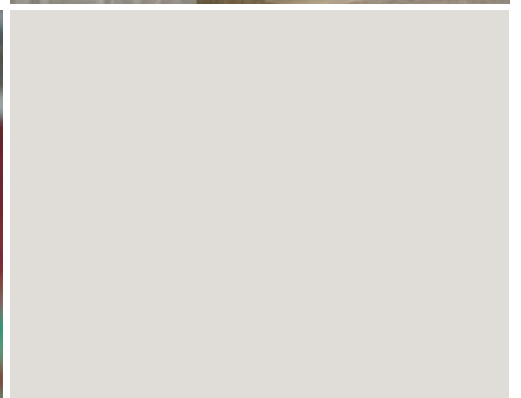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로하스 강릉 작은도서관

강릉시청 건물의 18층 행정자료실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함.
지역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북 카페 콘
셉트로 실내 인테리어를 갖추었고 전시 및 공연 시설을 함께 마련함.
동해와 백두대간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자랑하며, 곧 주변에 택지
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 재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 66
- 개 관 2008. 5. 6.
- 규 모 660㎡
- 시 설 주제별 자료 코너, 강릉출신 저명작가코너, 어린이 자료
코너, 자료검색코너, 행정자료실, 전망대, 시민참여 공연
무대, 자매도시 홍보전시관, 북 카페
- 도 서 5,000권
- 운영시간 오전 09:00 ~ 오후 22:00(연중 무휴)
- 전 화 033) 640-5881 • 팩 스 : 033) 640-4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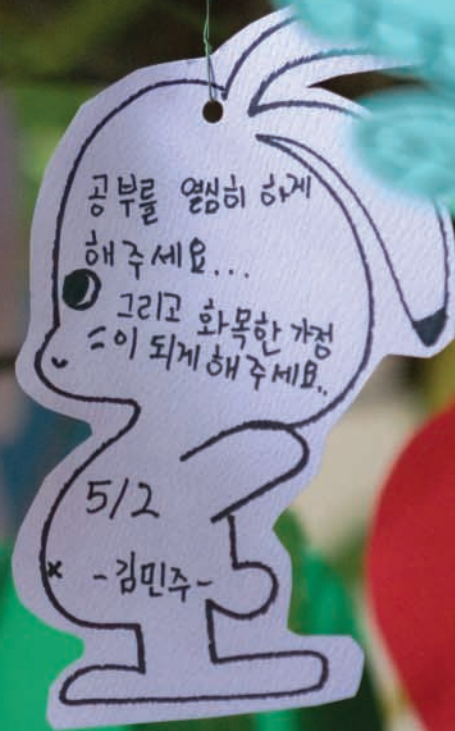
충북 증평
고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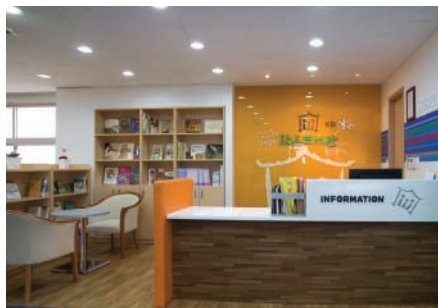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KB

새마을금고





우리들의 작은도서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 “뭐라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 준다고요?”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K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MBC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에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설마 조성지로 선정될까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증평읍의 54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작은도서관 조성지로 선정되었고 조성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민의 작은 참여에서 비롯된 ‘고맙습니다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은 2008년 5월 2일 개관하고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이장님이 끌고 주민들이 밀고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의 2층. 처음 분양 시 문고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지금껏 빈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은도서관 조성지로 선정되자, 이 유휴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주민자치조성위원회’가 발 빠르게 조성되었다.

- “우리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지어 준다니 우선 작은도서관이 뭐하는 곳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을 맡은 마을 이장은 다른 지역의 이름난 작은도서관을 견학 다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구성된 자치회에서는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 “도대체 어떤 책들을 들여놓아야 하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들여올 도서 목록을 뽑았다.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도 1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해 주었다. 이미 활성화된 다른 작은도서관의 사서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집기나 물품 등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기증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주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주민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벽돌을 쌓아 올리듯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착착 진행되었다.



“온돌 바닥이라 집처럼 너무 편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모든 학습방에서 눈 영화도 볼 수 있고, 멀티미디어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도담도담, 작지만 크게 키워 갈 거예요

리모델링 과정을 정신없이 보내고 개관을 며칠 앞둔 자, 윤곽을 드러낸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싶어 마을 주민들은 지나가는 길에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더욱 관심을 보였고 개관식에도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기쁨을 나눴다.

“온돌 바닥이라 집처럼 너무 편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모듬학습방에서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멀티미디어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은 맘 놓고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엄마를 따라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작은도서관을 찾고 있다. 이제부터는 리모델링한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게 관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한 후 운영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어떤 주민들은 성인들을 위한 도서를 더 많이 구비해 달란다.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도 더 모집하고 프로그램도 타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군 행정 등 관리경험이 많은 주민 한 사람이 사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 “처음엔 우리가 과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중한 지원비를 가지고 백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오니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지자체의 운영 지원도 없는 상태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어렵게 조성한 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담도담 건강하게 아이를 기르듯 우리들의 작은도서관,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중평균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고맙습니다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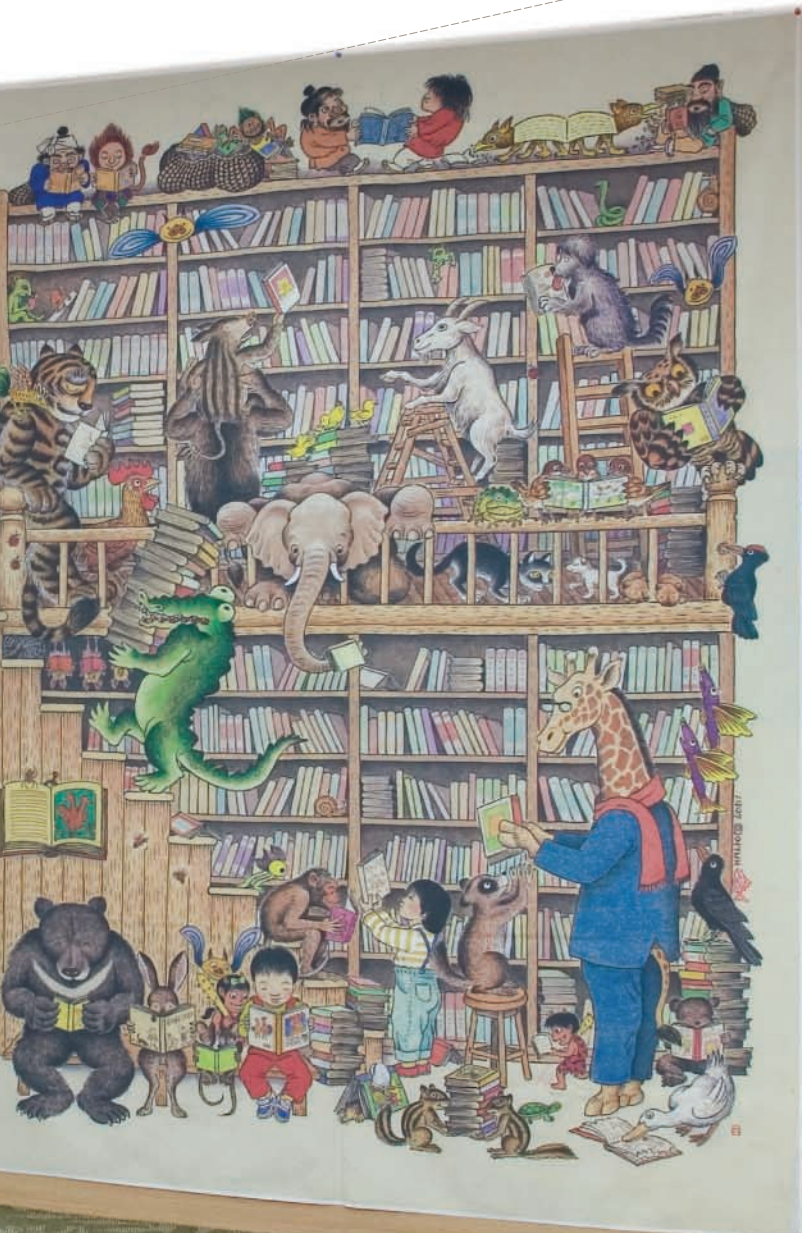
충북 증평군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나의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니 거리의 제약이 커서 작은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컸던 중 한 아파트 주민이 신청을 함으로써 조성지로 선정 되었음. 지자체 등과의 연계 없이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조성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 참여와 애착이 남다름.

• 소재_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33-1(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개관_2008. 5. 2.

• 규모_207㎡ • 시설_열람실, 모듬학습공간, 숨는방, 다락방, 책읽어주는방, 컴퓨터자료실

• 도서_3,150권 • 운영시간_시범운영 후 결정 • 전화_043) 836-1690 • 팩스_043) 836-1950







원
당
꿈
초
롱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에는
바다가 있어요!



- “도서관 안에 바다가 있어요. 배, 바다 속의 여러 가지 물고기들... 마치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기분이에요.” 은서(초교 2)는 요즘 날마다 해변에서 놀고 있는 기분이란다. “개관하고 나서는 매일같이 오고 있어요. 특히 유아 수유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돌이 안된 막내까지 데려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보낼 수도 있어요.” 세 아이를 둔 장소연 씨(34)는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 덕분에 아이도 키우면서 문화생활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뿌듯해 했다. 비어 있던 창고를 리모델링한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은 개관하자마자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하루에만도 200여 권의 도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주민들 생활 속으로 성큼 발을 들여 놓았다.



지자체, 지역주민, 작은도서관 삼박자 맞춰 태어난 ‘원당꿈초등학교’

원당꿈초등학교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가까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못지않게 높은 이용률을 자랑한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은 차편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아파트 단지 및 인근 주민들이 원당꿈초등학교 작은도서관을 찾아오고 있다.

- 주민들의 문화 욕구는 큰 반면 그동안에는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이어졌던 터라 사업문고를 준비하던 중에 작은도서관 조성지로 선정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개관할 수 있었다.
- 원당꿈초등학교 작은도서관은 지자체, 지역주민, 작은도서관 측이 함께 힘을 모아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진군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했으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도서를 기증받기도 했다. 공사 완료 후 유아 수유실의 집기 및 각종 소품 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들여 놓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실내의 벽화 그림 등은 많은 주민들의 피땀 어린 자원봉사의 결실이었다.
- 넉넉치 못한 공간이지만 입구에 전시 갤러리를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품을 전시하거나 화가, 예술가, 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주민들 역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셈. 지역 자연환경의 특색에 따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당진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서해 낙조를 느낄 수 있는 창가의 열람 공간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특별한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군 직영 체제로 운영, 작지만 큰 도서관으로 성장할 터

“신도시 내에 위치하여 주변 아파트만 해도 3,000여 세대로서 도서관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장서와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또한 인력에 있어서도 파견근무 직원 외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개관하자마자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오고 있기에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은 갈 길이 바쁘다. 특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모두 새로 장만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구연동화, 스피치, 주부를 위한 한지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아동과 주부들을 주 타깃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장서 정리는 군립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졌고, 앞으로의 도서 구입에도 군 예산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및 다른 작은도서관과 묶어 상호대차시스템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아직은 장서나 전문인력면에서 부족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녀회, 주민 대표회 등과 적극 연계하는 한편, 군 직영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큰 성장잠재력이 엿보인다 하겠다.



“와아, 미끄럼틀이다!”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에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미끄럼틀도 있다. 어른들이 낙조가 지는 바다의 정서를 즐긴다면 아이들은 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미끄럼틀로 뛰어가서 타고 내려오거나 그 아래 구석진 공간에서 자신만의 공상과 책 읽기에 몰두한다. 도로변의 안내표지판을 보고 한번만 발길을 돌려놓게 되면 누구나 마니아로 만들어 버리는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은, 오래도록 문화공간을 기다려온 원당리 주민들이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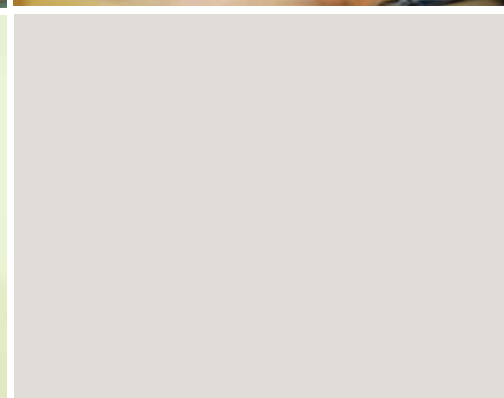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원당꿈초롱 작은도서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임대주공아파트 등 3,000세대 주민이 거주하는데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유치를 희망하여 사립문고 준비 중에 작은 도서관 조성지로 선정되어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었음. 아파트 주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문화 아지트로 자리 잡았음.

- 소 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1251 원당마을아파트 내 관리동 내 2층
- 개 관 2008. 5. 14. • 규모 194㎡
- 시 설 입구전시공간, 안내공간, 다목적공간, 유아수요공간, 아동공간, 상담코너 등
- 도 서 3,000여 권
- 운영시간 화~금 10:00~19:00 토·일 10:00~18:00
- 전 화 041) 350-3974 • 팩 스 : 041) 350-3975





먼
달
로

이제는 다리 건너
시내 도서관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을에도 도서관이 필요해요.”

“아파트만 잔뜩 들어섰을 뿐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낙동강가의 마을 안동시 정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급격하게 2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으나 문화시설은 물론 상가 시설도 부족한 데다가 교통도 불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 특히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정하동은 시내에 비해 문화가 소외된 지역이어서 한번 책이라도 빌리려면 안동대교를 건너 시내 도서관으로 가야 했으니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주민들은 눈길을 끄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 바로 먼달 작은도서관! 한번도 작은도서관에 가보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먼달 작은도서관의 단짝친구가 되었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조성된 먼달 작은도서관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단짝 친구가 된 먼달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 조성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점점 거세지자 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도서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주민들의 뜻이 있기에 작은도서관 조성지로 선정되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

- 먼달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2층에 자리 잡았다. 원래 이곳은 어린이미술학원이 있던 자리였는데 학원의 남아 있는 계약기간 임대료까지 보상해주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유아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주요 콘셉트는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도서공간을 겸한다는 것이었다.

-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먼달 작은도서관을 알게 되었어요. 학원을 일찍 마치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들르곤 해요. 만화로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있고 집에 없는 다양한 책들도 많아서 좋아요.” “이제까지는 도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았거든요.” “안동대교 넘어 시내 도서관까지 가지 않게 되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모으며 즐거워했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나갈 터

먼달 작은도서관은 '사진 동아리', '미술 동아리' 등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틀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곧 동아리 외에도 DVR 시청각실 운영, 북스타트 운동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들이 문화 교육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는 데 가장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성장과 성취의 보람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개관 시 MBC로부터 200여 권의 책을 기증받아 보태기도 했지만 여전히 장서는 부족한 형편이라서 도서관 설립신고를 마치는 대로 시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도서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 다른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먼달 작은도서관에서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2009년에 시청에 예산 및 공익요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약 19명 정도입니다. 그중 한분은 부산에서 사서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나머지 분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먼달 작은도서관의 보배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 이처럼 장서 확충과 시스템 마련,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까지,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마련하고 운영의 틀을 갖추어가는 먼달 작은도서관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족한 운영비, 인력 등 아직은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개관 1주일 만에 회원들이 300명 선으로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이어지는 발길이야말로 먼달 작은도서관의 힘이다.



고맙습니다 먼달 작은도서관

미술학원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였음, 기존에는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야만 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컸음. 문화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지던 중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컸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근접성이 좋은 편.

• **소재** 경북 안동시 정하동 240-2(현진에버빌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개관** 2008. 5. 13. • **규모** 141㎡

• **시설** 열람 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문화프로그램 공간, DVD 시청 공간, 독서실, 인터넷 검색 공간, 유아전용공간

• **도서** 3,000권 •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토 10:00~15:00

• **전화** 054) 843-4499 • **팩스** 054) 853-6225



내
동

작은도서관을 넘어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합니다



- 경남 창원시 평생학습시설인 내동사회교육센터. 어느 날 내동사회교육센터 2층이 요란해졌다. 노후 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였다. 사회교육센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낡은 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만드네요.” 리모델링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들여다보고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기쁜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지역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을 홍보해 주었다.

- 드디어 2008년 5월 16일, 새롭게 단장한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자 몰려든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자축을 했다. 10년 이상 마을도서관으로 역할을 해오는 중에 모든 시설이 심하게 노후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던 터라 그만큼 기쁨이 더욱 컸다. 입구부터 확 달라진 작은도서관 안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새롭게 펼쳐졌다.





도서관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

내동 작은도서관은 주 이용자가 여성과 아동들이기 때문에 공간 구성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아동 특화 도서관'을 지향한다. 우선 입식보다는 좌식 형태로 된 '엄마랑 아가랑 책방'이라는 공간을 이번에 새로이 마련하여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을 잡는 데 성공했다.

- “내동 작은도서관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모델링한 이후 거의 매일 오고 있어요.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에요. 책도 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작은도서관은 우리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 공동육아모임 동아리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 김미정 씨(37)의 말이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 아이도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몽골인 L 씨(36)는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근로자인 L 씨는 언어 문제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늘 고통을 받았는데 내동 작은도서관을 알게 되면서부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 내동 작은도서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이웃과의 벽도 허물고 친해지는 한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아이도 점점 밝은 성격으로 변해간단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내동 작은도서관은 1명의 사서와 평생교육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된다. 두 사람 모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일요일에 나와 수고하는 주말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동아리 회원 등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빼고

내동 작은도서관을 말할 수 없다.

- 한편,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기 전에 내동사회교육센터로 수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내동 작은도서관의 강점이다.
- 유아그림, 찰흙나라, 레고닥터,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 요가, 엄마와 함께 하는 베이비 마사지, 색종이 접기 등의 유아 프로그램은 물론, 피카소 수채화, 글쓰기교실, 과학교실, 내동 방과후 공부방, 내동 어린이중창단, 역사교실, 수채화 완성, 퀴트 공예, POP 예쁜 글씨, S라인 성인요가, 일본어교실 등의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독서모임(콩과 콩깍지), 일본주부모임, 내동수다모임(여썸), 운영위원회, 신문편집위원회 등 각종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내동 작은도서관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 노후 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부모 · 저소득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가족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방과후 공부방 사업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특화 작은도서관으로서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여성지원 프로그램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 내동 작은도서관은 오다가다 들르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삶의 여건을 함께 의논하고 대처해 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가족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넘어 지역 주민 모두의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리라 기대한다.



고맙습니다 내동 작은도서관

기존의 내동사회교육센터 내 마을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재개관함.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과 사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이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왔음. 여성과 아동 특화 도서관을 지향하며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소재_경남 창원시 내동 456-2 내동민원센터 2층 • 개관_2008. 5. 16. • 규모_182㎡

• 시설_열람실 및 서가, 프로그램실, 엄마랑아기랑책방, 방과후공부방, 인터넷 프라자 • 도서_9,500권

• 운영시간_평일 09:30~19:00 토·일 09:30~17:00 (공휴일 휴관)

• 전화_055) 287-4114 • 팩스_055) 287-4114



전북 완주

고남읍

배곧뜰

작은도서관

KB

KB

KB

KB

재미있다!!!

배곧뜰

도농지역 한가운데에
문화의 향기를 전합니다!



- “PC방이 없어진다고요?” 처음 소식을 접한 동네 학생들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특히 들르곤 하던 동네 PC방이 사라진다니 이제 어디 가서 뭐하고 여가를 보내나 싶었다. 그럼 PC방이 있던 곳에 뭐가 생기는 걸까, 궁금해서 현장의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작은도서관이란다. “작은도서관이라고요?”
- 도서관이라고는 가끔씩 찾아오는 이동도서관 밖에 보지 못했던 동네 학생들은 실감을 하지 못했다. 배꽃들 작은도서관과 이서지역 사람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제는 PC방보다도 훨씬 학생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었다.

이동도서관은 이제 그만, 발길 닿는 곳에 있는 작은도서관

배꽃들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이서지역은 서민아파트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했다. 완주군 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인데 워낙 멀리 있어서 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만이 이서 지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도서관 서비스였다.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인근에 있어서 일반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완주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주도했던 것이다.

- 이서 지역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배꽃들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 시 특정한 타깃 층에 맞춘 콘셉트를 정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 또한 개방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뜻한 벽화와 캐릭터 사인물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일정 면적은 온돌 바닥으로 시공하여 유아전용공간도 마련하였다. “간절하게 기다려 온 작은도서관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 같이 오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왔지만 요즘은 애들이 더 좋아하네요.”
- “가까이 있으니까 오고 가기가 정말 편해요.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어요.” “나태해지는 일상에서 귀중한 시간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치한 배꽃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근접성이 좋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개관하자마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배꽃뜰 작은도서관은 도서 마련 시 완주군 도서관에서 일부 이관을 받았고 웅진씽크빅에서 일부 기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개관식 행사 때 지역도의회가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도서기증운동을 병행하는 한편 완주군도서관에서 대출누적 통계가 높은 도서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들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군도서관과 연계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 배꽃뜰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운영인력 확보다.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개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 이기에 갖춰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신규 회원증 발급이나 도서 관리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 다행히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치해서 한문교실, 독서교실, 예쁜 글씨 POP 등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 덕분에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배꽃뜰 작은도서관 개관을 기다려온 이서면 주민들은 독서회 첫 모임을 가졌다. 전업주부부터 교사, 약사, 문구점, 음식점 경영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배꽃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지금 이서지역 학생들은 PC방 대신 작은도서관이 주는 재미에 눈을 떴다. 일반 이용자들 역시 작은도서관에서 교제와 문화를 나누며 배꽃뜰의 정취에 흠뻑 젖어있다.







고맙습니다 배꽃들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의 동아리·PC방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함. 도농복합지역이며 혁신 도시 예정지로서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앞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충분한 운영인력 확보가 관건임.

- 소재_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86번지 • 개관_ 2008. 5. 7. • 규모_ 145㎡
- 시설_ 도서열람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프로그램 공간, 인터넷 검색 공간, 유아전용 공간
- 도서_ 4,800권 • 운영시간_ 월~토요일 09:00~18:00
- 전화_ 063) 222-1919 • 팩스_ 063) 222-1919



전남 여수

고급습니다

민들레

작은도서관

KB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민
들
레

모두가 꽃잎 하나씩 모아
탐스런 민들레 문화 만들 거예요!



- “저도 인터뷰 할래요.” “나도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마을 주민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온다고 하니 너도 나도 출연하고 싶다고들 난리다. 민들레 작은도서관 개관을 3일 앞둔 2008년 5월 6일, MBC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에서 민들레 작은도서관을 연결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민들레 작은도서관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개구쟁이 녀석들은 해맑게 장난기 어린 얼굴이었다. 어린이와 주민들이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벽에 붙여 나가자 커다란 민들레가 만들어지면서 작은도서관과 주민이 하나가 되었다.

영차 영차, 모두가 땀 흘려

들뜨고 신난 건 어린이들만이 아니었다. 동네 어른들도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 내내 “드디어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생긴다.”며 기웃거리고 어린이들보다 더 좋아했다. 그런데 미평사회복지관의 컴퓨터실, 방과후 공부방, 컴퓨터실과 사무실 및 화장실 통로 등 여러 곳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신축 시보다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다. 이것을 본 지역 주민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모두 나서서 함께 폐기물을 나르며 비지땀을 흘렸다.

- “남의 집 일도 아니고 우리 작은도서관 일인데.” 모두들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만든 민들레 작은도서관. 안내데스크 뒤쪽으로 열람실을 동아리실 및 모임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책 읽는 공간을 넘어서 음악교실과 노래교실, 문해교실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민들레 작은도서관은 미평동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의 미평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다가 지역 내 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있어서, 학생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녁에 와서 숙제도 하고 도서관 선생님이 공부도 가르쳐 줘서 정말 좋아요.” “음악동아리에 참여하니까 학원 안 다녀도 되고요,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건전한 놀이 문화가 없어서 늘 어른들의 걱정을 사던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민들레 작은도서관은 현재 미평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겸직으로 근무하며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평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작은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2009년경에는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기할 예정이다.

- “도서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는 직원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지만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용구 관장의 말이다.
- 민들레 작은도서관의 동아리 모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엄마 자조 모임’이다. 도서관에 관심 있는 엄마들로 구성되어서 월 1회 이상 꾸준히 모임을 가지는 열성과인데다가 교제도 하며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다. 아이들의 실질적인 의견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 그밖에도 백일장 대회, 종이접기 교실, 시화그리기 교실, 사운드오브뮤직 음악교실, 동화구연교실, 오늘은 영화 보는 날, 성인문해교실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중에서도 성인문해교실은 어르신들이나 해외 이주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줌으로써 한글을 몰라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개관식 1주년이 될 때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도서관의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후원처 개발 등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 민들레 작은도서관은 특히 학생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컴퓨터게임과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책임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민들레 홀씨처럼 문화와 지식의 씨를 퍼뜨림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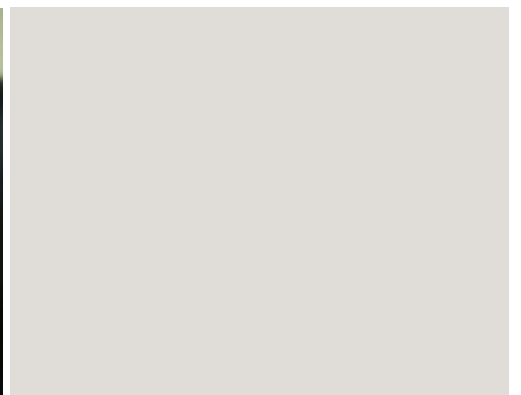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민들레 작은도서관

미평사회복지관 내의 여러 공간을 통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함. 사회복지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 MBC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에 소개된 바 있으며 향후 소식지 발간, 후원처 개발, 전 문인력 채용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소 재 전남 여수시 죽림로 109번지 (미평사회복지관 2층)
- 개 관 2008. 5. 9.
- 규 모 165㎡
- 시 설 서가, 열람실, 동아리실, 디지털자료실, 유아실
- 도 서 7,300권
-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토 09:00~15:00
(공휴일, 개관기념일, 직원연수일 휴관)
- 전 화 061) 651-6980 • 팩 스 : 061) 651-6980









홍익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지만 큰 일꾼 키워갑니다!

- 제주시 삼양동의 초등학교 앞.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문구점 게임기 앞에 모여 전자오락에 열을 올렸다. 건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환경과 학습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각종 놀이에 노출되어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도 불편했었는데, 그러던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게임보다 작은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작은 변화는 바로 작은도서관이 생긴 것. 학교 끝나고 작은도서관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에 생기가 넘친다. 어른들의 마음도 그만큼 웃음꽃이 번져간다.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행복 비타민

제주의 농·어촌 지역으로 학교, 은행, 주민센터 등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도 그동안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었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게임을 하거나 배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작은도서관에 대해 “아동들에게 문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더 나아가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 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 문을 열어서인지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 모두가 한 달에 최소한 5권의 책을 읽는 그런 멋진 마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김순실 관장의 말이다. 아이들의 반응도 연일 뜨거워졌다.
- “자꾸만 오고 싶어요. 학교도서관은 4시만 되면 문을 닫아 버리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 영어 선생님이 홍익 작은도서관을 알려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2분도 걸리지 않아요.” “책이 보고 싶어도 부모님이 부담스러울까봐 사 달라는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실컷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모두 일을 하시니까 학교 끝나고 동생과 둘이서만 밤까지 집에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작은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니까 무섭지도 않고 즐거워요.”



“온돌 바닥이라 집처럼 너무 편해요.”



-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익 작은도서관은 인테리어보다는 장서 구입에 더욱 신경을 썼다.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신간 구입에 주력했다. 실내 공간은 면적이 좁은 것을 감안하여 모노톤으로 통일하였고 복잡한 장식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민의 삶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프로그램

홍익 작은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책 읽어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치료의 효과까지 겸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책을 읽기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어 준 다음 서로의 감상과 의견을 나누고 응용 활동까지 곁들이게 된다. 그 밖에도 가베교실,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은 유아들과 엄마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가족독서캠프’를 새로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참이다.

- 홍익 작은도서관은 특히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다. 독서를 통한 심리 치료인 ‘독서치료’는 물론이고, ‘무료 가족상담’에서는 기본적인 심리 상담과 필요 시 홍익아동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놀이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 홍익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 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삼양청년회, 도런청년회와 삼양초등학교 어머니회, 제주색동회어머니회, 제주시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것이다.
- “아동 복지 50년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작은 공간에서 미래를 짊어 질 큰 일꾼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 홍익 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한 만큼 지역아동센터 때부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에 힘을 실어 주리라 예상된다.





고맙습니다 흥익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함. 아동 교육과 문화 혜택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기대치가 높은 편임. 아동복지센터 때부터 축적된 아동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발전 가능성을 지님.

- 소재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 2동 2181-3 • 개관_ 2008. 5. 15. • 규모_ 105.78㎡
- 시설_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활동실, 아동 · 청소년 · 성인 도서공간, 프로그램실
- 도서_ 4,500권 • 운영시간_ 평일 10:00~21:00 토 12:00~16:00 • 전화_ 064) 702-0845 • 팩스_ 064) 702-0845





해외로 전파되는
KB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사랑



“공부하고 싶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공부라고 하면 전지리를 치는 우리 아이들과는 달리 공부하고 책을 보고 싶다는
진진한 눈망울을 반짝이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문화와 교
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저개발 국가인 그곳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
계를 도우며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다.

국내 문화 소외지역 10여 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한 나눔의 기업 KB국
민은행이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꿈과 미
래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가족, 세계를 향해

KB국민은행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고맙습니다 KB 작은도서관(Thank You, KB Small Library)조성사업’의 첫 열매는 베트남 Tan Quy Elementary School, Trong Thcs Le Loi Secondary school 두 곳과 캄보디아의 Phnom Kraom Elementary School이다. 스텝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MBC, SNV(네덜란드 공적원조기구)와 함께 협력한다.

- 우선 수혜국 정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도서관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내다보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의 2곳, 캄보디아 씨엔립 1곳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
-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해외에 보급함으로써 저개발 교육사업에 노력하는 KB 국민은행의 국제 사회적 공헌 이미지를 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민은행은 해외 지원사업의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현지에서 일하는 관련을 통하면 실제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존의 다소 부정적이던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어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해외의 작은도서관

베트남 호치민의 작은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건물을 활용하여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성한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베트남 상황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의료약품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자주 즐길 수 있도록 축구공도 비치한다.

- 캄보디아 씨엔립의 작은도서관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구급약품과 축구공을 비치하고 태양발전시설을 갖춰 전기시설이 부족한 캄보디아 상황에서도 저녁까지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어 학습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을 감안 영어 교사도 배치하는 등 적어도 1년 간 KB국민은행이 운영 지원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 이처럼, KB국민은행은 단순히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 정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상세한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일정기간까지 운영비까지 책임져 줌으로써 해외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코파이 주세요.”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축구하러 왔어요.”

- 머잖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작은도서관을 찾아와 우리의 초코파이를 먹으며 책을 보고 우리가 배치한 영어 교사한테 알파벳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마당에서 축구공을 찰 것이다. 독서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법도 배워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과 미래를 변화시킨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나라와 기업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다 시야를 넓힌 큰 사랑, 보다 책임감 있는 사랑을 세계 곳곳에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Tan Quy Elementary School(베트남 호치민)

- 건물_ 학교 내 도서관 활용, 규모 55㎡
- 내부설비_ 도서(1,000여 권), 책장, 책상, 걸상, 컴퓨터, 선풍기, 문구류(철판, 연필, 컬러 펜 등)
- 학교에서 요구한 문구 및 선풍기, 컴퓨터를 지원
- 간단한 구급약품 및 축구공 비치

Trong Thcs Le Loi Secondary School(베트남 호치민)

- 건물_ 학교 내 도서관 활용, 규모 80㎡
- 내부설비_ 도서(1,000여 권), 책장, 책상, 걸상, 컴퓨터, 선풍기, 문구류(철판, 연필, 컬러 펜 등)
- 기존의 사서(관리인) 및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 간단한 구급약품 및 축구공 비치

Phnom Kraom Elementary School (캄보디아 씨엔립_ 예정)

- 건물_ 학교 옆 사원 건물 활용, 규모 38㎡
- 내부설비_ 도서(1,000여권), 책장, 책상, 걸상, 컴퓨터, 냉방시설, 태양광 발전지 등
- 도서관 조성 및 최초 1년간 KB 국민은행이 운영비를 지원
- 도서관에서 1일 1회 간식(초코파이)을 제공하여 빈곤층 여성과 아동을 도서관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제고
- 영어교사를 채용하여 영어교과과정을 운영
- 관리인을 채용하여 도서관 시설 및 운영 관리
- 적어도 하루에 8시간 태양이 비친다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 태양광 발전지를 비치
- 간단한 구급약품 및 축구공 비치



아름다운 나눔

거장을 감동시킨 70명의 소년들
기증받은 낡은 악기와
부족한 레슨이 전부였던 아이들이
영혼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장의 손끝과
소년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정명호씨는 부산소년의 집 단원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어 소중한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 국민이 만듭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KB 



Part 2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보다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요즘 여기저기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외치는 소리가 높다. 작은도서관을 지어 주어서 고맙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고맙다... 기타 등등 너도나도 작은도서관이 고맙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원은 바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있다. 한참을 걷고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힘들게 도서관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집 근처에 생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덕분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작은도서관이 뭐길래 우리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걸까? 또 작은도서관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가까이 하기엔 먼 공공도서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07년 말 607개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8만 명당 1개관(선진국 미국 3만 명당, 일본 4만8천 명당, 영국 1만2천 명당)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은 예산 확보 등의 곤란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이 먼 곳에 있는 문화해택 소외지역을 최우선으로 아파트 단지 내이나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같은 유희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가까운 복합 문화공간’

흔히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상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은’과 ‘도서관’이란 단어를 붙인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운동인 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와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도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첫째,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도서관이다

대부분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웃집처럼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다

다양한 독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지식정보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독서와 취미활동의 장으로, 주부들에게는 모임공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에게는 컴퓨터, 또 주말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오며가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참여의 공간이다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은 수혜자인 동시에 참여자이다. 자원 활동가, 기부자,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동, 1960에서 2008까지

❖ **농촌의 마을문고에서 시작되다** 현재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 운동인 작은도서관 운동이 정부차원에서 국가정책화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열정과 공공부문의 지원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에 시작된 임대주택의 농촌 계몽형 도서관 운동인 마을문고 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후 1980년대 소외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민간 도서관 운동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자원활동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이라는 MBC의 ‘느낌표’ 프로젝트에서 도서관에 대한 국민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로 이 시점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민간 주도 운동에서 국책사업이 되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에만 치중해왔던 사업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3개년(2006~2008) 동안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집중 시범 조성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25개 지역, 2006년도에는 58개 지역, 2007년도에는 전국 72개소(리모델링 64개소, 건립지원 4개소, 상호대차시스템 4개소) 총 155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조성대상 지역은 지자체에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공간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비품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가나(단파, 아보코비) 2개소에 조성하여 작은도서관 운동의 국제화에 기여한 바 있다.

❖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되다** 2006년과 2007년이 ‘작은도서관 시범조성 및 기반구축단계’였다면 2008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작은도서관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변화의 해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의 단발적 국책 사업으로 끝맺기에는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문고)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 및 지자체의 호응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당 1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장기 지속 발전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작은도서관 조성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작년에 이어 건립 3개소 리모델링은 53개소 총 56개소를 지원 조성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성을 폭넓게 확산하고자 민간기업 등 독지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과 공동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2007년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결실로 KB국민은행(11억 원)과 STX(3억 원)가 후원기업으로 나서 총 14억 원을 기부하였다



2008을 넘어 미래가치를 바라보다

■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마을의 커뮤니티도서관이라고 한다. 호주의 경우 주로 시청사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선진국의 도서관 문화가 얼마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2008년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 청사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다(전라북도 청사, 서울시 금천구 청사, 강원도 강릉시 청사). 이는 공공청사를 주민용 독서공간과 행정자료실을 통합 운영하여 지자체 청사 방문객·민원인·직원의 주민친화적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도 모두 작은도서관** 현재는 마을단위의 지역사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은 민간후원사업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민간기업과 국민의 후원 및 참여를 확대하여 조성재원 확보, 책보내기, 자원봉사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역 단위의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병영·교도소·병원도서관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작은도서관 운동의 법적 기반을 갖춰야**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육성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지 못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하여 연구용역한 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08년 2월 11일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하여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원입법 발의(17대) 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자 한다.

■ **기업, 언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이 정부정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이 아닌 범사회적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조직된 이후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성과이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뤄 놓은 것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하겠다. 전국 어디를 가도 주민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작은도서관이 있고, 책을 보고 문화를 향유하는 게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작은도서관진흥팀은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세우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공공이 끌고

등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 단위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자 범국민적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2007년 9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60년대 새마을문고 운동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 운동은 2008년 현재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이 작은도서관 보급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

기업이 밀어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땀 흘린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렇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에 참가하는 3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은 2007년 7월 31일(화) 이 운동을 공동주관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민간기업의 후원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주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인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업전반의 지도·지원을 맡고 있으며, MBC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희망지역 신청 접수 및 기업 후원의 유치와 홍보 운영을 담당하고 UNWTO ST-EP재단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모델을 보급하고 있다. 이 외의 협조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의 접수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은 국내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현황 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조성지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위_ 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 3개 기관 MOU 협정식

아래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청 홈페이지
<http://welfare.imbc.com>





1차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 2007. 11. 30



2차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 2008. 5. 6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페인은 '07년을 시작으로 '08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07년에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페인을 시작하는 단계로 '07. 11. 30일에 MBC-TV 창사 특집 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방영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소개하고 전문패널이 출연하여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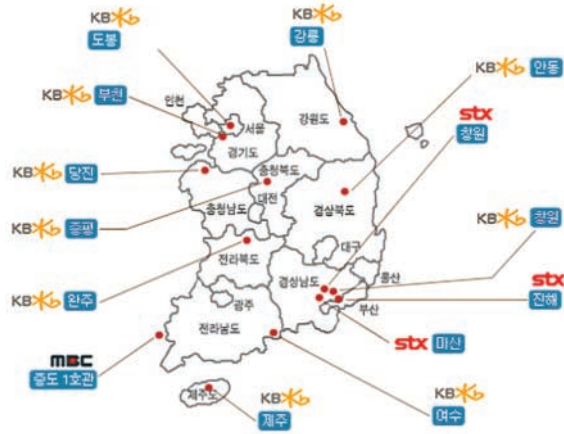
'08. 5. 6(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2차 생방송을 하였다.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작은도서관의 의미 전달 및 정책방향, 국내·외 작은도서관 현장 소개, 전국 13개소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현장을 스튜디오와 중계차로 이원 중계로 연결하여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의 영상 메시지 및 기업후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첫 개관식 현장의 모습을 방영하였으며 전문패널이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등 작은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니는 특징과 장점,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좌_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우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국내 조성 현황



기업이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앞장 섭니다

작은도서관 보급에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11억 원, STX(회장 강덕수)가 3억 원을 후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들 기업의 후원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13개소의 작은도서관이 3개월여 동안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08년 5월 1일 부천시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 13개소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하였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해외 3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했다.

KB국민은행과 STX의 후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KB국민은행 후원 서울(도봉구), 경기(부천시), 강원(강릉시), 충북(증평군), 충남(당진군), 경북(안동시), 경남(창원시), 전북(완주군), 전남(여수시), 제주(제주시) 등 10개 지역, 베트남과 캄보디아 3곳
- STX 후원 경남(창원시), 경남(진해시), 경남(마산시) 등 3개 지역

- STX 후원 경남(창원시), 경남(진해시), 경남(마산시) 등 3개 지역

조성지역 선정은 후원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며, 학교 내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이용을 전제로 지원하게 된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1개소 전용면적(165㎡)을 기준으로 최고 1억 원 정도를 지원하며, 내부공간은 열람공간, 모임공간, 안내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서가, 도서, 디지털자료, 컴퓨터, 프린터 등 적정소요 물자를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국내 첫 번째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시범 조성·개관하였으며,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가나(아보코비, 단파)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모형을 시범 조성한 바 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 2008년 4월 현재

(총 26개 도서관)



좌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국외 조성 현황
우_ Thank You Small Library(아프리카 가나)

산골에서도 해외에서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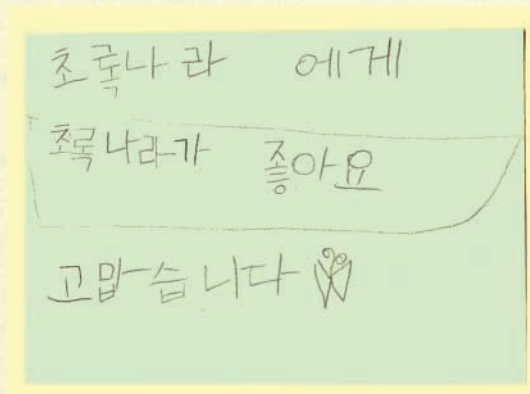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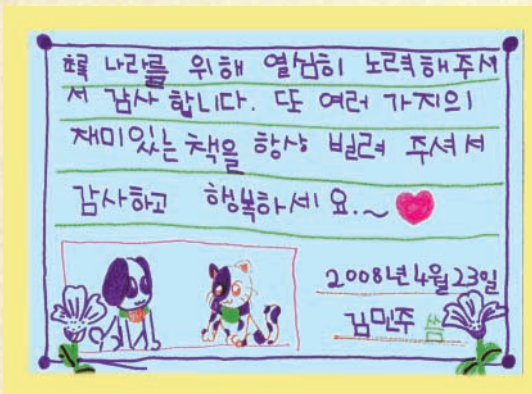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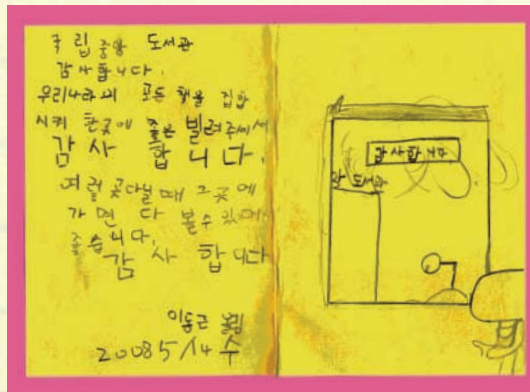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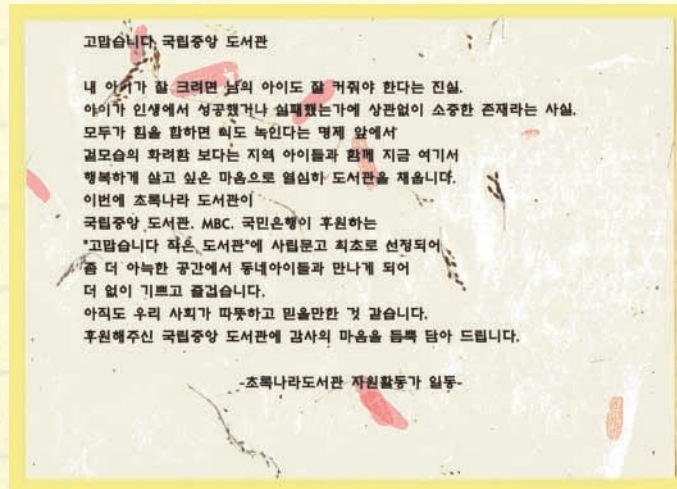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해 나가기 위한 작은도서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자 기업, 독지가, 일반국민의 후원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B국민은행과 STX와 같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책이나 운영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호응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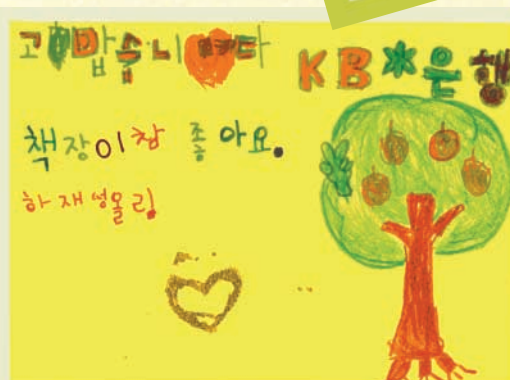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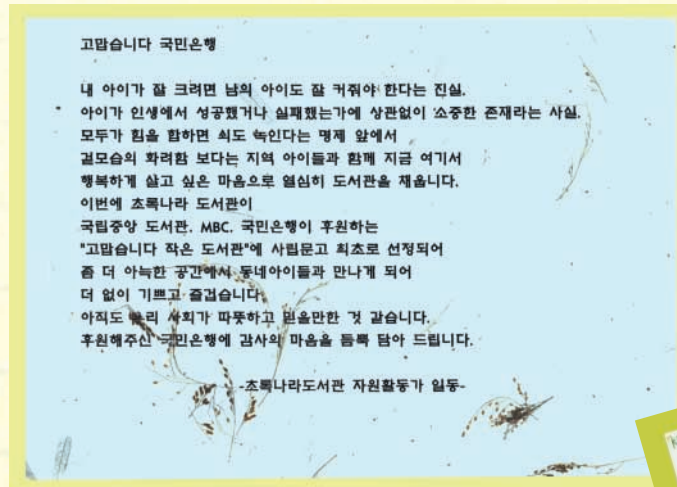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산골에서도 해외에서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각 계 각 층의 단합된 노력이 우선되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이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각 지자체 담당자 및 운영자 분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을 후원해 준 KB국민은행과 STX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Press Look



**웰컴
작은 도서관 ...
생큐 코리아**

조선일보
2008년 2월 5일

"알룰루루루루, 생큐 스몰 라이브러리(고마워요 작은 도서관)."

까만 피부에 하얀 이를 드러낸 아이들은 뜻밖의 선물에 마을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달 31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리데타 섭시티 케벨레 마을에 '산타'가 찾아왔다.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에 앞장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ST-EP 재단이 '작은도서관'을 선물한 것. ST-EP은 옛 동사무소 건물을 1000권의 책이 가득한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엔 '고마워요 작은도서관, 여러분의 세계가 바뀌는 곳(Thank You Small Library Where Your World Changes)'이란 문패가 내걸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인 유순택 여사는 "나도 어렵게 컸지만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도서관의 대형 서가 4개엔 이 나라말인 암하릭어와 공용어인 영어로 된 이야기책들과 한국 전래동화 영문본이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마당에서 벌어진 축하 다과회에서는 한국에서 특별 제작해 선물한 빵튀기 기계가 강냉이를 쏟아내며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STEP은 이곳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인 '코리아 빌리지'의 히브레트 파이레 초등학교 등 모두 8곳에 도서 8000권 등을 기증했고 가나에도 같은 사업을 펼쳤다. '작은 도서관' 유치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관심사가 됐다. 에티오피아 사업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기금을 지원했다. 도영심 ST-EP재단 이사장은 "작은 도서관들을 우리 청소년들의 해외봉사활동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는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EP재단 에티오피아에서 도서 전달
아디스아바바=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울수리 도서관
개관**

일간스포츠
2008년 5월 8일

"김일병, 담배 하나 피고 올테니 내 식판 좀 대신 닦아줘~."

"유병장님, 요즘 같은 민주군대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구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지난 4월 24일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모처럼 맛보는 추억의 '짬밥'이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이 되어서도 군대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다. 확인이 불가능한 옛 무용담 역시 난무한다. 그중 압권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잊혀졌던 무덤을 발견한 이야기. 큰 아들 마의태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이 25사단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에서 발견됐다.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있는 신라 왕릉이다. 민통선 지역에 있던 이 왕릉이 군인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너도나도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조연이라고 자랑한다. 회원수 400여명의 이수회(25사단 수색대 출신 모임)가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후배들을 위해 병영도서관 개관에 동참했다.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김성재 대표, 황규식 전 국방부 차관, 육군 제 25보병사단장과 함께 이수회 회원 17명도 울수리도서관의 힘찬 출발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유청열 이수회 회장은 '비록 도서관 개관에는 큰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도맡아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간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하며 울수리 수색인의 끈끈한 정을 과시했다.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일간스포츠와 함께 펼치는 병영도서관 국민운동에 각계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26사단 햇살가득강병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전우회가 동참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의 25사단 울수리도서관이 문을 연 것. 5월에는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18연대와 강원도 인제의 육군 과학화훈련단에 병영도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후원 및 문의 02-465-5417.



**꿈과 희망의 고향...
작은도서관
싱가포르에서 영부인을
만나다**

월간 작은도서관
2007년 11월 30일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3시 권양숙 여사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정책과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소수의 취재진과 현지 관련자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치러졌다. URA의 부청장이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 도시개발의 특징', 두 번째가 '생활밀착형 환경공간'에 대한 브리핑으로서 주로 머린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 대한 브리핑은 마지막인 세 번째였는데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Senior Director'인 'Tay Ai Cheng'이 발표를 맡았다. 공식적인 세 가지 브리핑이 있은 후 이어진 질문 답변 순서에서 권 여사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의 운영과 정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우선 권 여사가 "싱가포르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의 건물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자 URA 측은 "커뮤니티 센터에 커뮤니티 라이브러리가 들어서는 경우 60년 정도 장기 임대로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누가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권 여사가 묻자,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던 'Tay Ai Cheng'은 "국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9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URA 측은 특히 싱가포르의 토지개발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토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땅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을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토지개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네마다 피어나는 꿈 '작은도서관'

**기업 후원 첫 사례
'도란도란 도서관'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5월 2일



복사골 부천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알찬 책들로 가득 찬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일 그동안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민간기업과 독지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펼쳐 온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결실로 기업이 후원한 첫 번째 사례인 부천시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독서 및 생활문화공간을 조성,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11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해 15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또 최근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57개소를 지원하겠다는 2008년도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 번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는 이러한 국비지원과 별도로 기업후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 결과 국민은행이 10억원, (주)STX가 3억원을 기부해 '국민은행 후원 작은도서관'을 부천시 등 10개곳에, (주)STX 후원 작은도서관을 창원시 등 3개곳에 조성할 수 있었다. 기업후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번 부천시의 첫 개관행사를 시작으로 5월중 각 지역별로 개관 행사가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해 나가기 위해 기업 독지가 일반국민의 후원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범국민적인 독서·생활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B 국민은행

아이들의 돼지저금통도
할머니의 쌈짓돈도
아빠의 비상금도
아낌없이 모아
1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마을 희망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부산 반송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억으로
마을공동의 느티나무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 국민이 만듭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KB *6